



OSCOTEC

NDR IR Materials

2025 results and 2026 plan

2026.03

Agenda

1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로드맵

3 2025년 실적

Appendix



R&D 비전 | 내성 극복과 안전성 강화로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Oncology 기업

비전 내성 극복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Oncology 기업

R&D
지향점

원천 내성차단형 4세대 항내성항암제

암세포가 내성을 획득하기 전 근본 원인을 차단해 **암의 재발을 억제**, 기존 항암제의 지속성 한계를 해결

ADC¹와 TPD²의 융합으로 부작용을 낮춰 안전성을 강화한 차세대 DAC³ 플랫폼

약물이 암세포에서만 작용하도록 3단계 안전장치를 탑재, 정상세포 **독성을 최소화**하여 기존 ADC부작용 한계 극복

핵심
역량
및
강점

차세대 혁신 기술력

- ✓ 국내 최초 美FDA 승인 항암제 Lazertinib 원천기술 개발 (기술평가등급 AA⁴)
- ✓ 세계 최초 내성 특화 Hit & Target Pair 발굴(A-CART⁵) 플랫폼
- ✓ 차세대 DAC '3중 안전장치' 플랫폼
- ✓ 신규 파이프라인 10개 (새로운 기전의 혁신 신약 (FIC⁶) 8개)

World-class R&D 인력

- ✓ 국내 Top-tier급 R&D 조직 보유 (총 53명 중, 47명의 석박사 전문인력; 3년 이내 R&D 인력 30명 증원 계획)
- ✓ 글로벌 리딩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톤 Ecosystem 활용 및 10명 이상의 국내외 전문가(KOL) 자문단 구축

Self-sustainable한 재무구조

- ✓ Lazertinib 매출로 R&D를 충당할 수 있는 self-sustainable 재무 구조
- ✓ 향후에도 1-2년에 1건 이상의 L/O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 강화

1. Antibody Drug Conjugate; 2. Target Protein Degradar; 3. Degradar-Antibody Conjugate; 4. 기술평가에는 AAA~D의 열 가지 등급이 있으며 AA는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기술력이 동종기업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 AA이상은 전체의 6% 미만으로 매우 드물, 본 사는 Lazertinib, GENO-K로 기술 평가를 받음 ; 5. 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6. First-in-Class



단계적 R&D 추진 전략 | 글로벌 상용화 매출, 1-2년에 1개 이상의 L/O로 단기 수익성 증장기 혁신 지속성/안전성 강화 기술

“내성 극복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Oncology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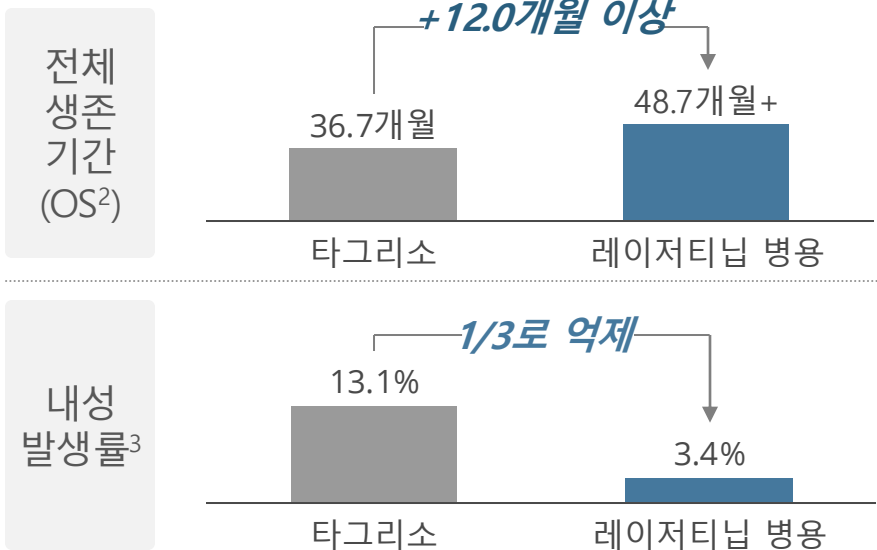
구분	역할/포지셔닝	세부 파이프라인	
초단기 제품/ 파이프라인	Lazertinib 글로벌 성공 및 self-sustainable 재무구조 정립	Lazertin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암 항암제의 글로벌 판매를 통한 안정적 현금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글로벌 항암신약 상용화 경험으로 신뢰 구축
		ADEL-Y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츠하이머 항체치료제(인지저하의 원인인 Tau 단백질 근본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1상, '25년 12월 사노피에 L/O (총 \$1.04B, 계약금 \$80M)
단기 파이프라인 (‘26-‘27년 L/O 목표)	추가 L/O통해 Self-sustainability 강화	GNS-3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발성 폐섬유증 표적치료제(섬유화와 염증을 동시에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1상, L/O(‘27)를 통한 self sustainability 강화
		OCT-6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장 섬유화 FIC 표적치료제(섬유화 발생 직접적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상, L/O(‘27)를 통한 self sustainability 강화
증장기 파이프라인 (‘28년 이후 L/O 목표)	항암 치료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강화한 항내성항암제 및 DAC 전문 차세대 Oncology R&D Leader	항내성항암제 OCT-598/ONC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 암세포 내성차단형 4세대 First In Class 항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고수익의 암종 및 타겟 확장 가능한 시장 기회 선점
		DAC DAC1~3/PKMYT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중 안전장치(Triple-lock) 기술 기반, 기존 ADC 대비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증된 기술 기반, 안정적 & 단기 수익화 지향



Lazertinib | 경상기술료 수취 본격화 & SC제형 상용화

비소세포폐암 경쟁 약물 타그리소 대비 생존기간, 내성 관점에서 임상 결과 우수

Lazertinib 병용¹ vs 타그리소(경쟁약물) 단독 비교 임상²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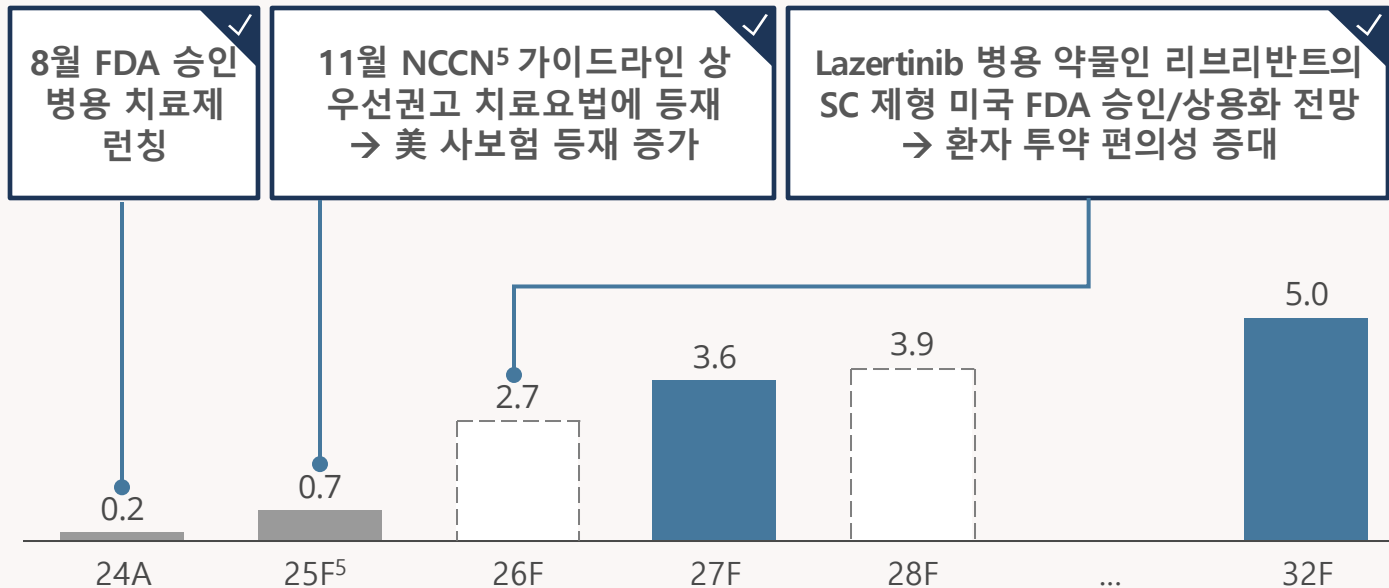
1. J&J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맵)과 라즈클루즈(Lazertinib) 병용 투여; 2. Overall Survival (치료 시작 시점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3. MET 증폭 내성 발생률; 4. '26년 SC제형 승인 이후 peak sales까지 7년 가정; 5.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미국종합암네트워크)로 NCCN 가이드라인은 미국 내 암 치료분야 내 권위있는 지침, 보험사는 암 치료 관련 약물·생물학제제 사용의 적절성 판단 시 NCCN의 가이드라인을 참고; 5. 25년 3Q 누적 연율화;

Source: 회사자료, J&J

Lazertinib 병용 약물의 SC 제형 상용화로 '26년 매출 본격화 시작, '32년 Peak Sales는 \$5bn 전망

J&J Lazertinib 병용 매출 가이드선스⁴

(단위: 십억 달러,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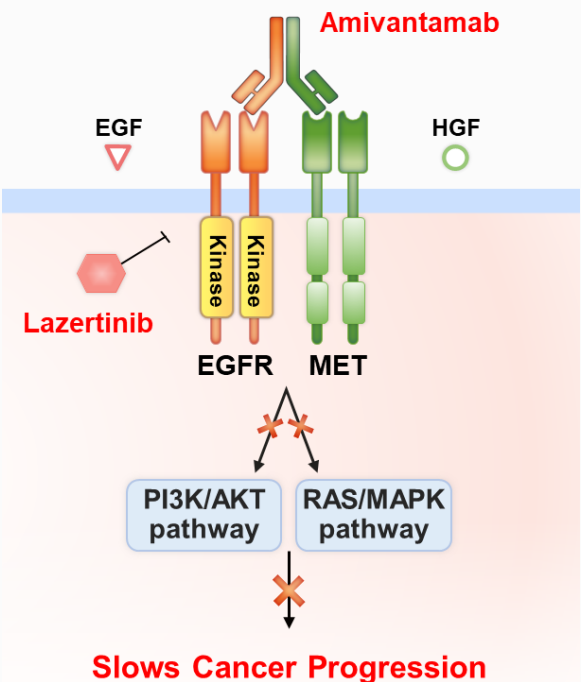
8월 FDA 승인 병용 치료제 런칭
 11월 NCCN⁵ 가이드라인 상 우선권고 치료요법에 등재 → 美 사보험 등재 증가
 Lazertinib 병용 약물인 리브리반트의 SC 제형 미국 FDA 승인/상용화 전망 → 환자 투약 편의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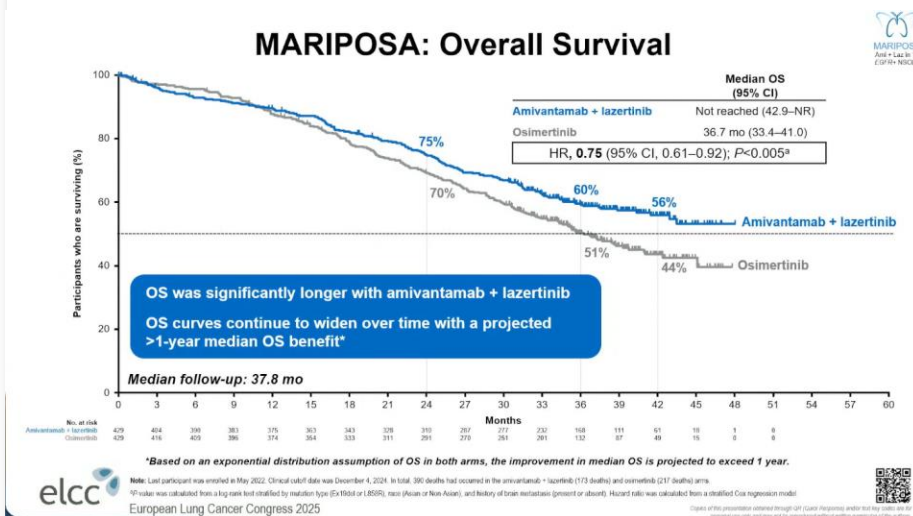
Lazertinib | Amivantamab 병용으로 Osimertinib 저항성 극복 및 OS 연장 > 12개월



병용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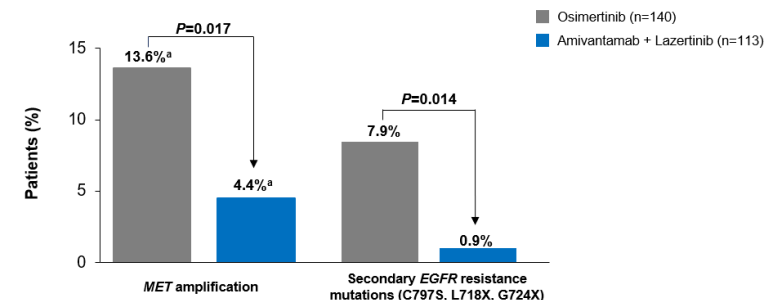
전체생존기간 (OS) 유의미한 개선



내성기전의 실질적 억제

MET and EGFR-based Resistance Mechanisms

Amivantamab + lazertinib significantly reduced the incidence of acquired MET amplifications and EGFR resistance mutations vs osimertinib



Acquired MET amplifications were ~3-fold lower and EGFR resistance mutations were ~8-fold lower for amivantamab + lazertinib versus osimertinib

✓ Lazertinib + Amivantamab 병용요법: OS 50개월 이상, HR 0.75로 사망위험 25%감소

✓ Osimertinib 대비 생존곡선 격차가 시간 경과에 따라 확대

✓ Lazertinib 병용요법: Osimertinib 대비 MET 증폭 및 EGFR 2차 내성 (C797S, L718X, G724X) 발생 억제

✓ EGFR/MET 동시 차단으로 내성 발생 자체를 억제 → 4세대 표적 필요 상황을 최소화

✓ USFDA: Lazertinib + Amivantamab 피하주사 승인 → 투여 편의성으로 향후 매출 증대 기여 (12/17, 2025)



ADEL-Y01 | 2025년 12월 사노피와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L/O 딜을 체결

“Lazertinib을 잇는 두번째 안정 수익 자원으로 자리매김 기대”

'25년 사노피와 1.5조원 규모의 L/O 계약 체결



파이프 라인 정보

- 2020년 ADEL 社와 공동개발 계약 (후보물질 단계)
- 적응증: 알츠하이머
- 타겟: 타우 단백질
- Modality : 항체
- Stage : 임상 1b상 진행 중



L/O 정보

- L/O 시점: '25년 4분기
- 상대회사 (Licensee): Sanofi
- 딜 규모 : 약 1.53조원 (upfront: 약 1,180억원)
- 공동개발 파트너; 아델
- 수익 배분율; 47% (오스코텍)

ADEL-Y01은 Tau 응집 중심부를 직접 표적해 병리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경쟁약물군

ADEL-Y01의 차별점

타 타우 항체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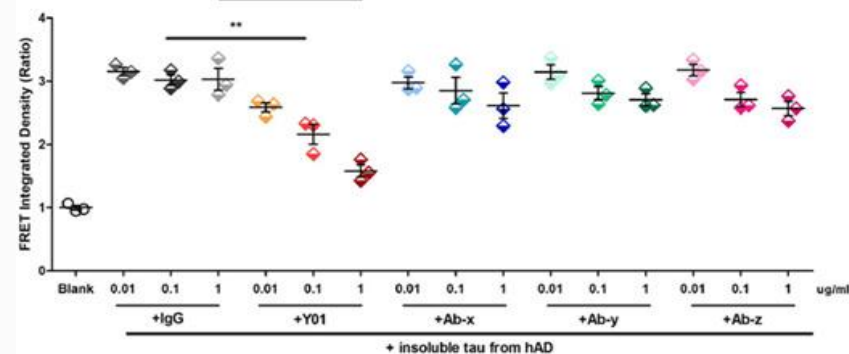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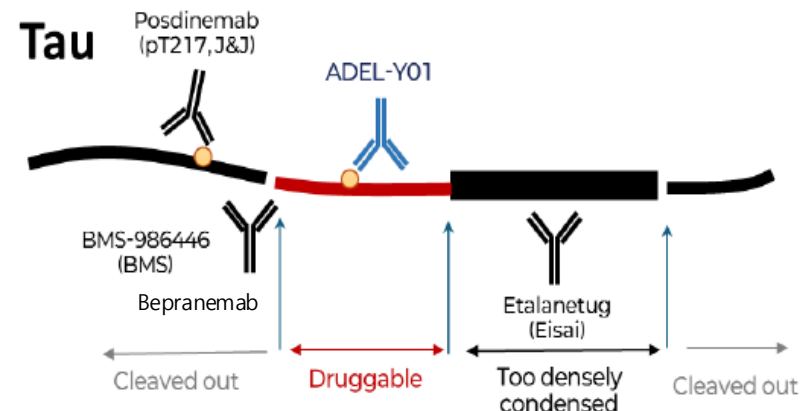
Tau 응집 중심부에 결합하여 병리 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 ▶ 경쟁 물질은 Tau의 N말단 영역에 결합하여 질병 진행 억제능이 제한적
- ▶ ADEL-Y01은 임상 1상에서 경쟁사 比 우수한 Tau 응집 억제 효능 입증

기허가 아밀로이드 항체 대비 (레کم비, 키선라)

Tau는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이 높아 Tau 타겟 치료제가 더 큰 임상적 효용 가능

- ▶ 아밀로이드는 질병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기허가 치료제는 효능 및 안전성에서 한계 노출
- ▶ Tau 축적이 실제 신경 사멸 및 인지저하를 유발하며, Tau 확산을 막는 것이 질병 진행 억제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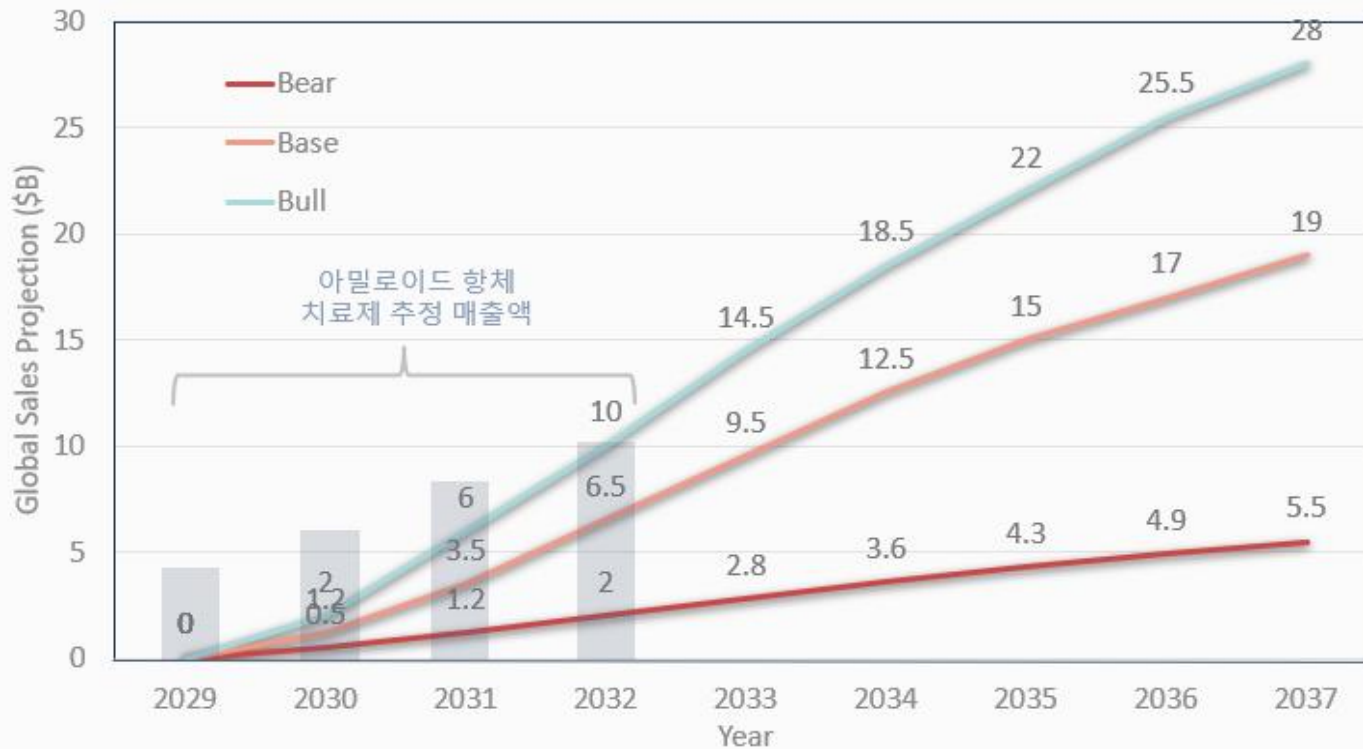




ADEL-Y01 | First- and Best-in-Class 가능한 타우 표적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제



타우항체 시장은 임상 진행 결과에 따라 최근 알츠하이머 질환개선 (disease-modifying) 치료제로 허가받은 레캠비, 키선라 등의 아밀로이드 항체를 능가, 최대 40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계열 내 최초 및 최고 약물이 될 가능성
타우 항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잠재력

전망

- 출시 연도: 2030년
- 적응증: 경도인지장애 포함 초-중기 알츠하이머 병
- 적용법: 단독요법, 1차 치료제
- 차별성: 우월한 질환개선 효능 및 안전성
- 약가: 연간 \$15,000 (bear) ~ \$25,000 (bull)
- 출시 지역: 미국 유럽 일본 등 7대 시장
- Biologics S-curve 적용

근거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mentia – Fact Sheet*;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 *World Alzheimer Report*; Braak H. & Braak E., *Neuropathological staging of Alzheimer-related changes, Acta Neuropathologica*; Jack C.R. et al., *NIA-AA Research Framework: Toward a biological definition of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 Dementia* (2018); *Tau 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cognitive decline in Alzheimer’s disease, Nature Reviews Neurology* and *The Lancet Neurology* (review articles); Eisai Co., Ltd. & Biogen Inc., *Leqembi (lecanemab) product and pricing disclosures*; Institute for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ICER), *Alzheimer’s Disease: Value Assessment Framework*; IQVIA Institute, *Global Medicine Spending and Usage Trends*; EvaluatePharma, *Pharmaceutical market forecasting and adoption methodology*.

Cevidoplenib | the World-Best SYK 저해제가 글로벌 재소환 중

왜 글로벌은 Cevidoplenib 을 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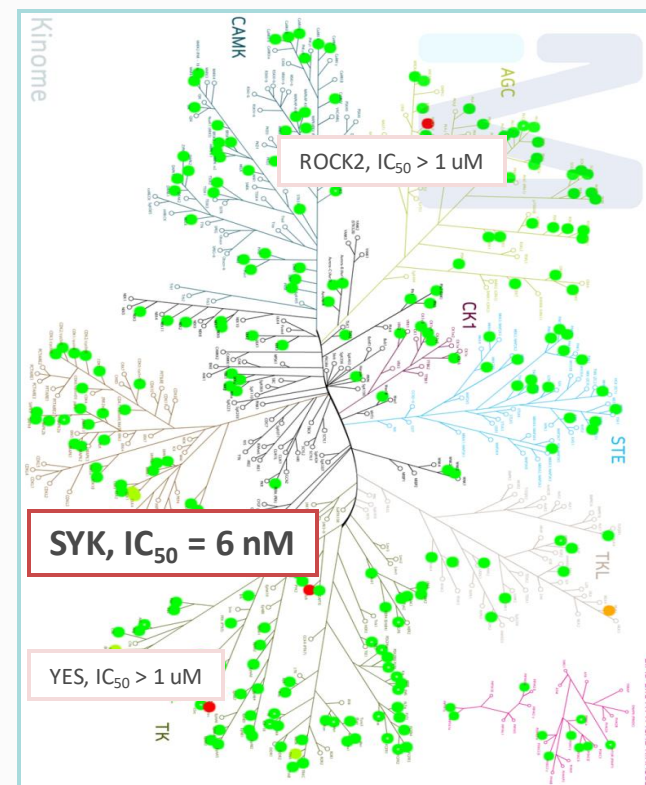
만성 질환(ex. 자가면역질환)에 적합한 Target Product Profile: **Safety First!**
 최상의 고객 만족도 추구 - 타협 없는 Kinase 선택성
 임상에서 입증된 효능과 탁월한 안전성 - 세계 유일

Cevidoplenib

- 경구투여 가능한 면역질환 치료제
- 강력한 SYK 키나아제 저해제로 B 면역세포내 상위 신호전달 기능 억제
- 광범위한 자가면역질환치료제로 개발 가능
- 임상 1상에서 안전성 입증. 특이적 부작용 없음
- 류마티스 & ITP(면역혈소판감소증, 희귀질환) 임상 2상 완료
- ITP 적응증으로 orphan drug 지정
- 임상 3상 준비중 글로벌 제약사 사업 제안 - 복수 적응증

경쟁약물 Fostamatin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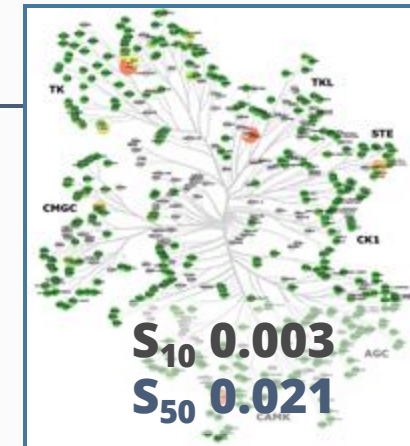
- Rigel Pharmaceuticals
- ITP 치료제로 FDA 승인(2018)된 유일한 SYK 저해제
- 부작용: 5% 이상 환자군에서 설사, 고혈압, 구토, 호흡기 감염, 어지러움, 간세포 손상, 홍조, 복통, 피로
- 부작용 원인: 불충분한 키나아제 선택성
- 적응증 확장 임상 시험 난항: 용량 증가 제한적
- 매출: 2,000 억원





OCT-648 | First-in-Class 만성신부전(CKD) 치료제 후보물질

- Injury 반응으로 유발하는 TGF β 매개 YAP 유전자 핵내 활성화 기전 차단
- 강력한 NUAK1 키나아제 저해 효과
- 신장 손상 반응으로 유도되는 섬유화 반응 원천 차단
- **World-Best 선택성 확보 – Again, Safety First!**



다양한 신장
손상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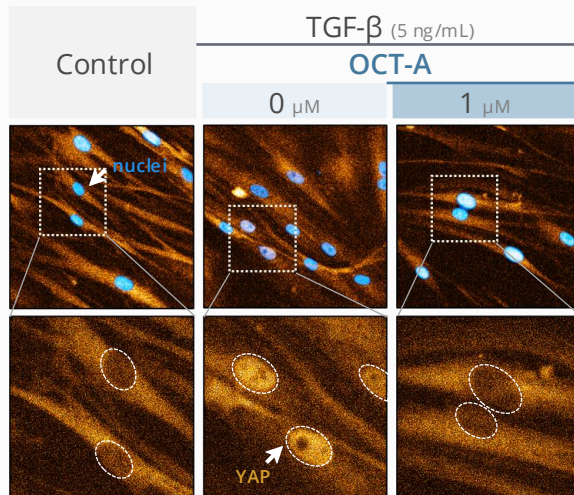
YAP/TAZ

섬유화 반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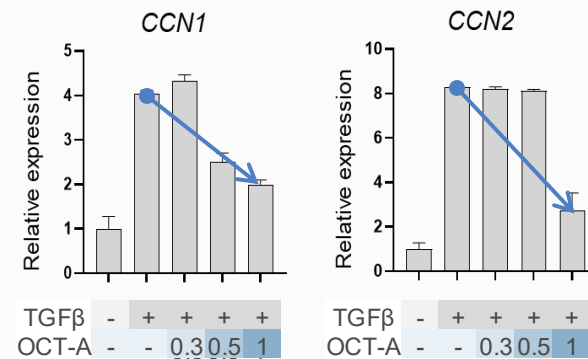
CK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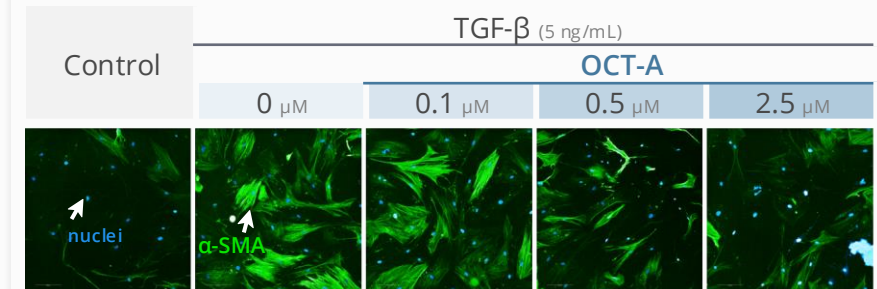
섬유화 유도 인자 YAP 핵 진입 차단



YAP 유도 섬유화 유전자 발현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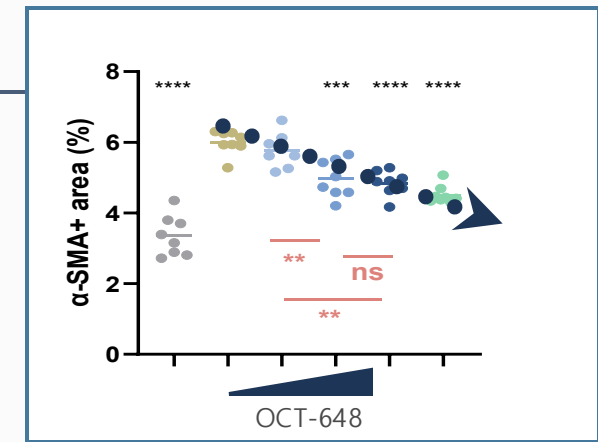
섬유화 반응 인자 발현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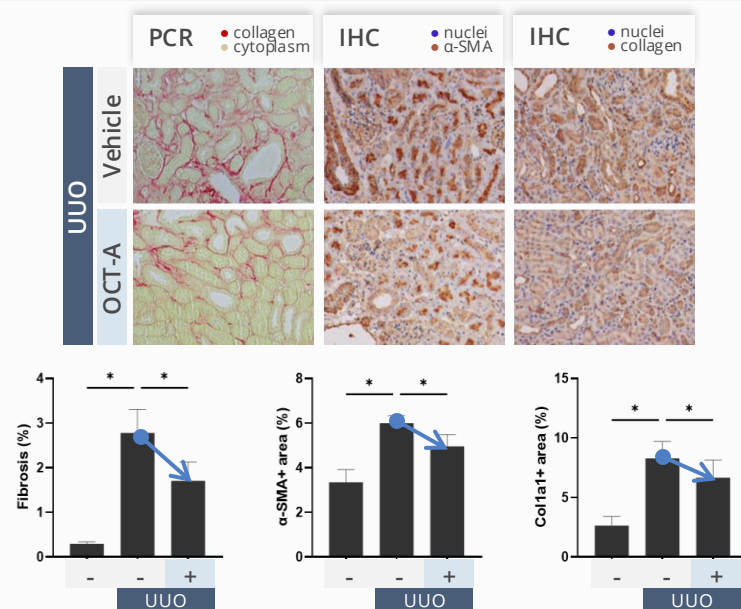


OCT-648 | First-in-Class 만성신부전(CKD) 치료제 후보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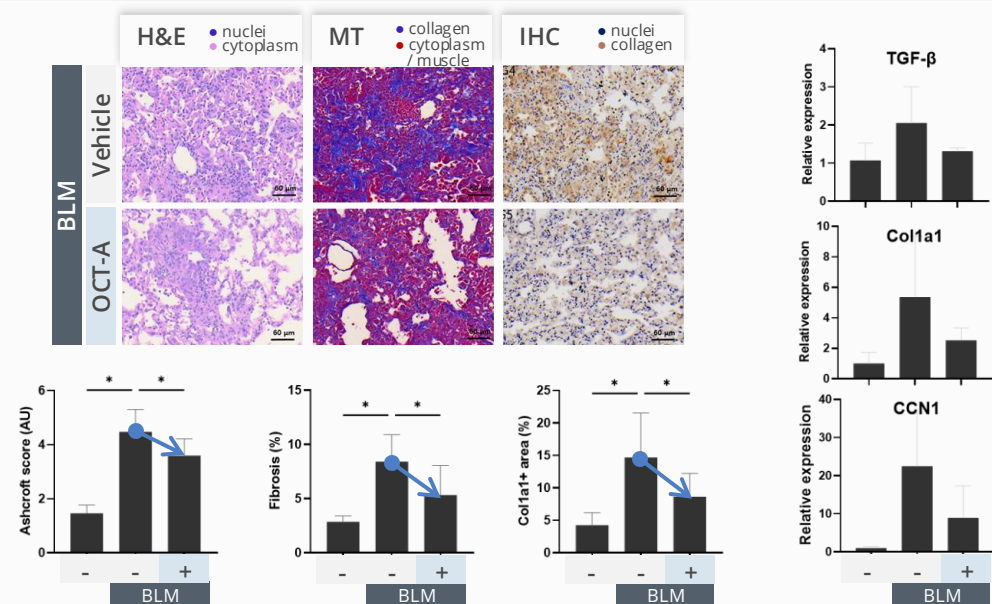
- 경구투여 가능한 CKD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 섬유화 지표 용량 의존적 개선
- 2026 2월 글로벌 빅파마 사업개발 미팅 개시
- 2026 3월말 WCN 발표 예정
- 타 섬유화 질환 적응증 확장 가능 - 탁월한 선택성



신장 질환 모델: UUO-indu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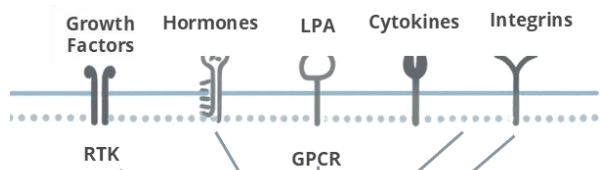
폐 질환(IPF) 모델: Bleomycin-indu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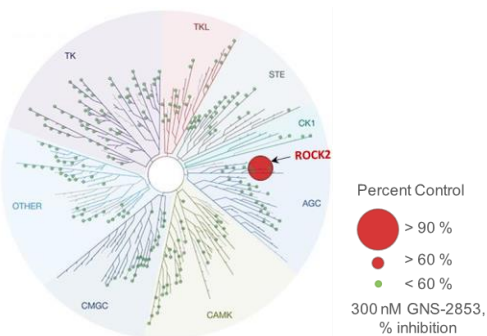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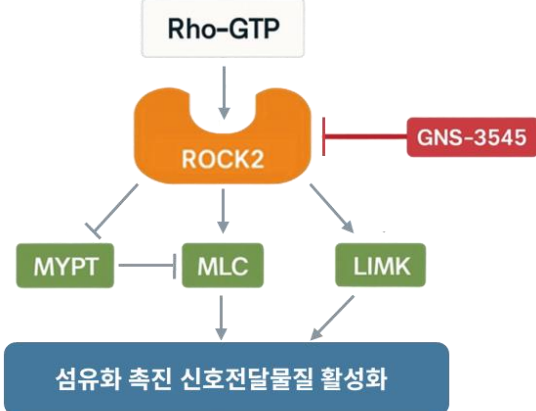


GNS-3545 | First-in-Class ROCK2 억제 IPF 치료제 임상 1상 연구 수행중

ROCK2: 폐섬유화 원인 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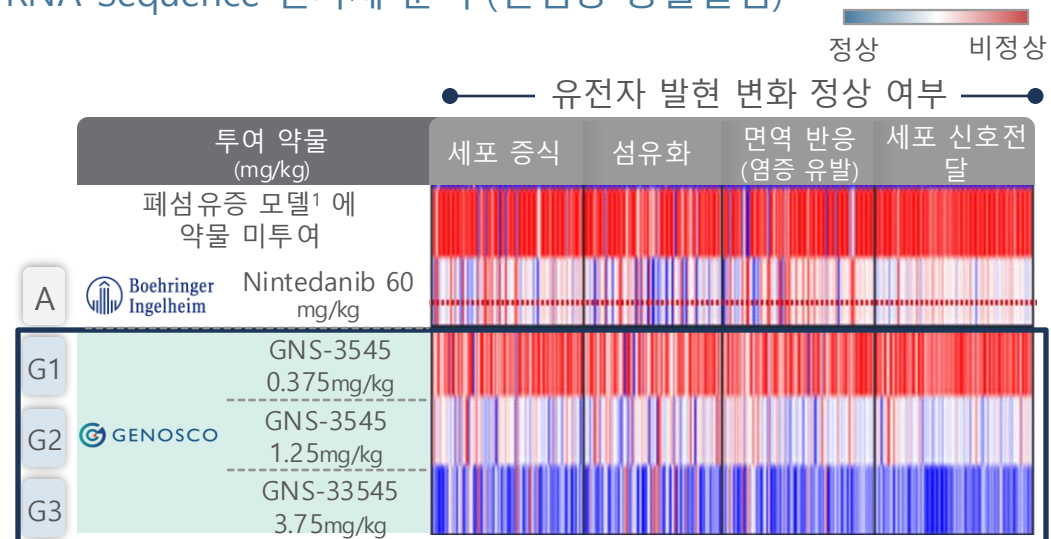
- ✓ Rho-GTP에 의해 활성화되는 ROCK
 - 특발성 폐 섬유증과 관련된 다양한 세포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
 - ROCK2 활성의 억제는 폐 섬유증에 대해 유망한 치료전략으로 기대



- ✓ 뛰어난 억제효능과 강력한 선택성 확인

폐 섬유증 관련 유전자 변화를 정상으로 되돌려 폐 기능 회복 가능성이 표준 치료제 대비 높음

RNA-Sequence 전사체 분석 (전임상 동물실험)



- GNS-3545는 투여량을 늘릴 수록 폐섬유증 관련 유전자 발현 패턴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우수함을 증명
- 폐섬유증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 Nintedanib (기존 폐섬유증 표준 치료제) 보다 더 강력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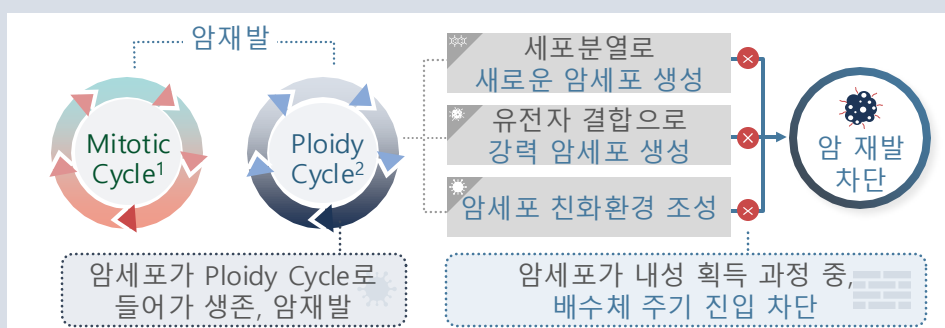


차별점

포트폴리오 의미

현재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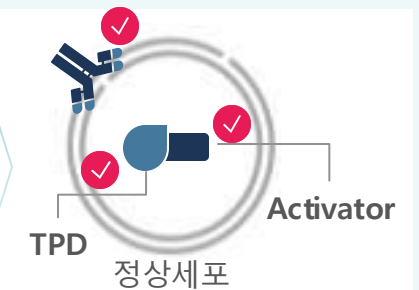
항내성항암제 (ACART)



- ✓ 암세포의 치료제 내성 획득 근본 원인을 차단해 재발 억제, 기존 항암제의 효용성 한계를 해결
- ✓ 고위험·고수익의 암종 및 타겟 확장 가능한 시장 기회 선점
- ✓ 현재 임상 1상 단계 1건 (OCT-598) & 다수 과제 진행 중 (ONC1, ONC2, ONC3); 조기 L/O 가능 FIC

Degrader-Antibody Conjugate (DAC)

- 3중 안전장치:
- ✓ 1단계: 정상세포 유입 차단
 - ✓ 2단계: 비표적 단백질 작용 차단
 - ✓ 3단계: TPD 활성화 차단



- ✓ 3단계 안전장치로 정상세포에서 작용하지 않는 기전 독성 최소화 (기존 ADC부작용 한계 극복)
- ✓ 골격별 우수 Payload 라이브러리 및 검증된 기술 기반 초기 공동개발 통한 빠른 L/O 수익화 지향
- ✓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약효 유도 & 안정성 강화 FIC: DAC1, DAC2, DAC3, PKMYT1

ACART = 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Mitotic Cycle = 정상 세포 분열 주기. 암세포는 항암제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면 이 주기가 아닌 Ploidy cycle로 이탈해 생존을 시도함; Ploidy Cycle = 암세포가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생존·진화 및 내성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배수성 순환 메커니즘; 3. 암세포 내에서만 탈락/제거되어 약물 작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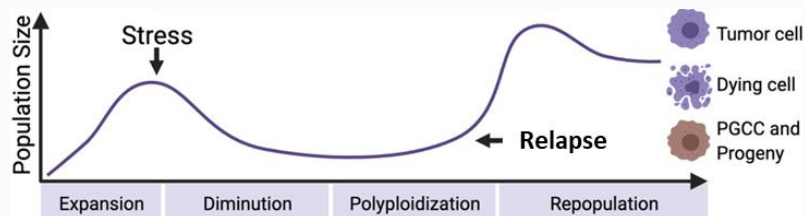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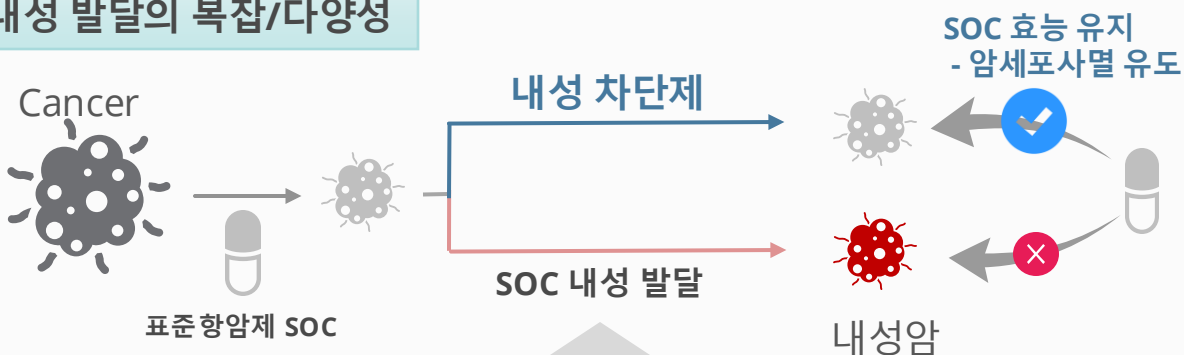


OCT-598 | ACART(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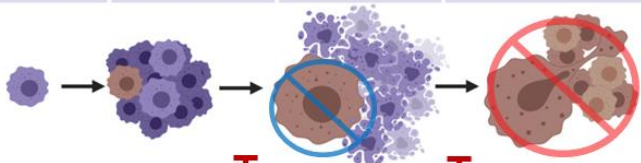
미래 ACART의 승자?

미완의 성공으로 남은 항내성제 병용 항암요법 분야 - 항암 의료계 최대의 숙제
 효능과 안전성 향상된 OCT-598/SOC 병용으로 글로벌 리더 영역 확보

내성 발달의 복잡/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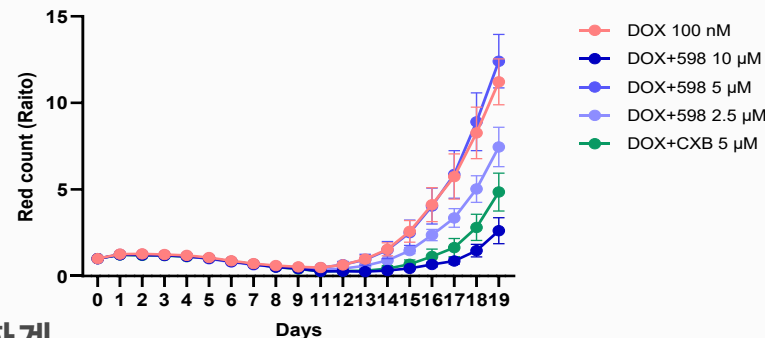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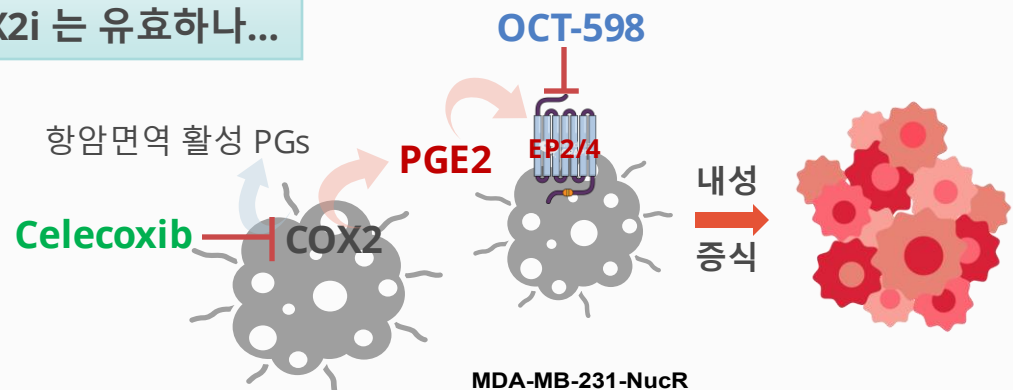
Various cancer type



Combination therapy

$$\text{Chemotherapy drugs} + \text{Compounds} = \begin{matrix} \text{Synergistic} \\ \text{Antagonistic} \\ \text{No discrimination} \end{matrix}$$

COX2i 는 유효하나...



COX2 저해제 한계

- 긍정/부정적 기전 혼재 - 임상 효능 한계 명확
- 심혈관계 위험 - 용량 제한, 장기 투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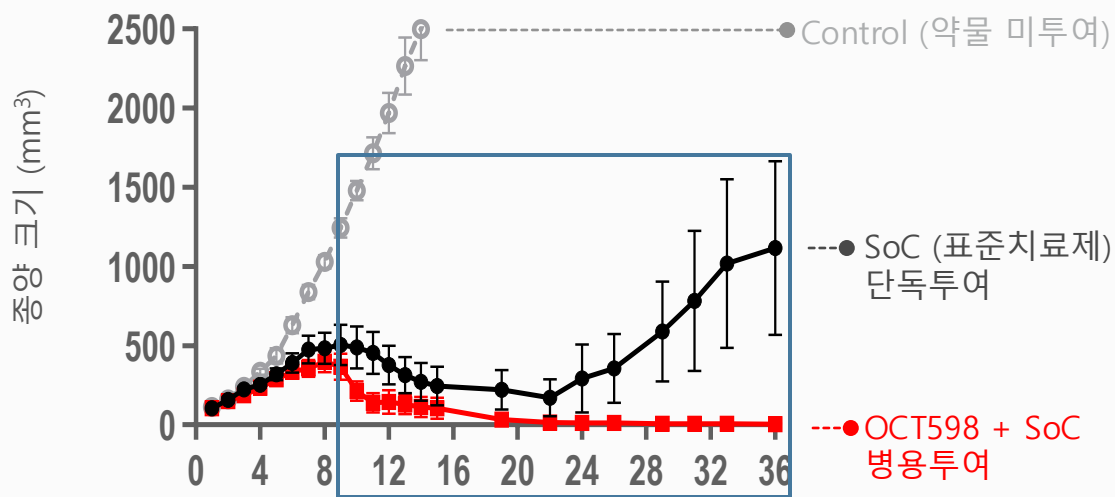
→ EP2/4 길목 차단 기전의 OCT-598 개발 필요



OCT-598 | 비임상 결과 탁월한 안전성과 효능 입증 - 임상 1상 수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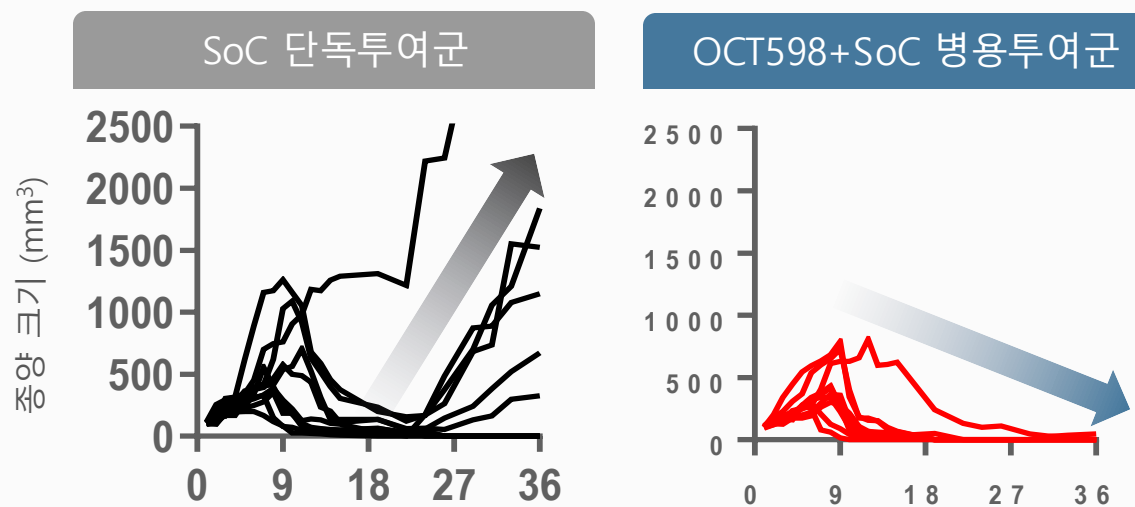
마우스 폐암 모델에서 OCT-598 병용 투여가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내성 발생을 차단

마우스 폐암 모델 기반 평균 종양 성장 곡선



➤ OCT-598 병용 투여 시 종양 크기 감소 및 재발 억제

개체별 종양 성장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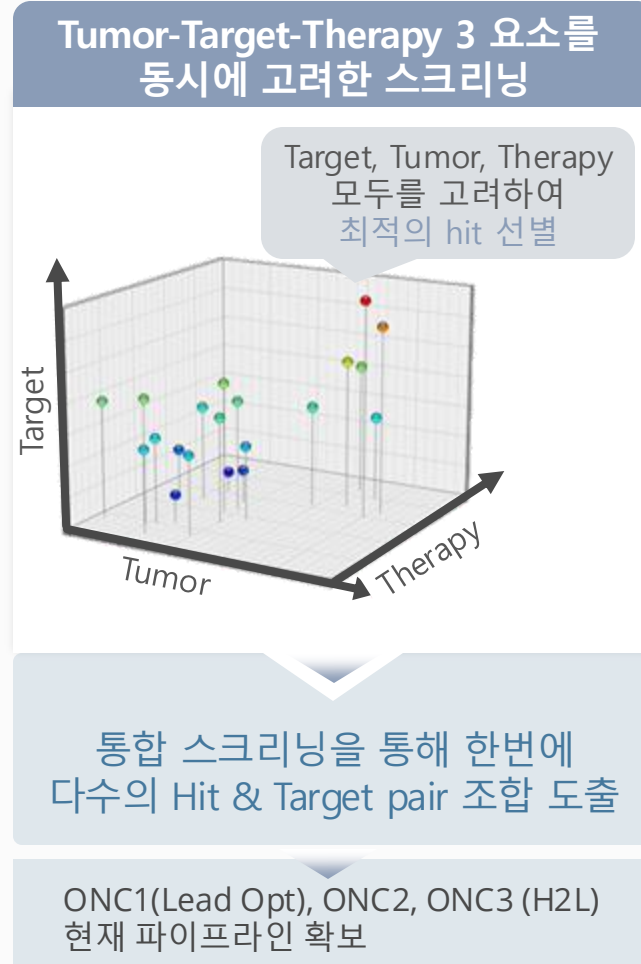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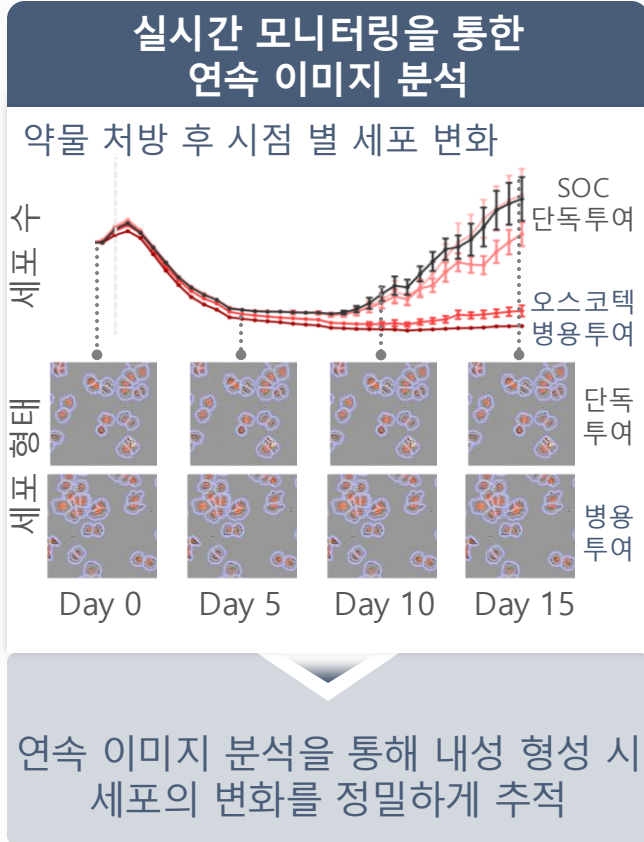
➤ OCT-598 병용 처방 시 내성이 차단되어 모든 실험 개체에서 27주 이후에도 항암 효과 유지



ACART 인프라 | 연속 이미지 기반 내성특화 Discovery 플랫폼 구축

A-CART¹ Discovery 플랫폼의 연속 이미지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내성 기전 특화 **Hit & Target pair**를 발굴하여 파이프라인 확장력 확보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고, 올바른 타깃 선정 능력 제고



운영 효율화

- 기존 제약사들은 Hit 발굴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
- 타겟 확보 이후 Hit 발굴 과정에서 평균 20억원의 비용 발생
 - Hit 탐색 및 검증에 1-3년의 기간 소요

당사는 Hit 탐색 단계 생략을 통해 개발 비용 약 20억원 및 개발 기간 ~2년 절감

타겟 적합도 향상

- 생물학적 타당성** 암세포의 내성 발현 기전을 in vitro 에서 재현하여 후보물질의 표적 기전 작용 검증
- 타겟 적합성** 여러 물질 중 내성 발현 억제 능력이 가장 우수한 물질 선별
- 효능 검증** 후보 물질의 내성 발현 억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물질의 효능을 정밀하게 추적

1. 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Source: 회사 자료



차세대 DAC | 기존 ADC의 unmet needs를 충족 및 내성문제 해결

기존 ADC는 여전히 화학요법 약물을 사용하여 심각한 부작용 초래. 최대 투약 용량에 한계 보유

비선택적 화학약물 기반 ADC



단점	화학요법 치료 시 80% 이상은 탈모 20% 이상은 패혈증 발생	기존 항암제와 동일한 기전의 화학요법 약물 사용
	중증 부작용의 경우 사망에 이룰 가능성 존재	→ ORR (객관적 반응률)은 개선, 화학요법 수준의 부작용으로 최대 투약 용량 제한
단점	강한 항암효과 위해 약물 증량 시 중증 부작용 발생 급증 → 최대 투약 용량에 한계	→ 내성 문제 및 안구독성 등의 안전성 이슈로 신규 기전의 차세대 Payload 필요성 증대

DAC는 ADC의 화학약물을 표적 단백질 분해제 (TPD)로 대체해 안전성 향상 및 내성문제 해결

DAC 개념도	DAC 장점
	<p>우수한 안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세포 증식 핵심 단백질 선택적 분해를 통한 항암효과 및 부작용 최소화 기존 TPD 약물의 전신노출과 달리 항체를 통한 암세포에 표적 배달 → 안전성 확대 <p>용량 대비 약효 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PD는 촉매로 작용하여 표적 단백질의 지속적 분해를 통해 암세포 사멸 유도 저용량으로도 높은 약효 기대 가능 <p>ADC 내성 환자를 위한 신규 치료옵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ADC Payloads인 화학약물과 다른 MOA로 화학약물 내성 암세포에 우수한 효능

1. 세포의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는 단백질로, 암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 단백질 중 하나이나 기존 약물로는 잡기 어려웠던 대표적 undruggable 타겟
Source: 회사 자료



Triple-Lock 기술 DAC | 1세대 DAC의 미충족 안전성 영역 확보

DAC의 부작용 발생 차단 기술



1단계 (정상세포 유입 차단)	2단계 (비표적 단백질 작용 차단)	3단계 (TPD 활성화 제어)
<p>DAC TPD 정상세포</p>	<p>정상세포 TPD</p>	<p>정상세포 TPD 안전핀 (암세포에서만 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체가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에 결합 → DAC의 정상세포 유입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C의 정상세포 유입 시에도 TPD는 표적 단백질만을 분해 → TPD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음¹ ✓ 다만 활성화 시 비표적독성²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D 탑재약물(payload)의 활성을 봉인하고 암세포 내에서만 해제되는 안전핀을 부착 → 정상세포 내에서는 해제가 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 추가 방지

- ✓ 제노스코의 차세대 DAC는 1세대 DAC과 달리 탑재약물이 암세포에서만 작용하도록 하는 안전핀을 부착하여, 정상세포에서의 부작용(비표적독성) 부담을 대폭 축소
- ✓ 정상세포 내 DAC의 TPD 약물 작용 가능성을 3중 안전장치 "Triple-lock" 기술을 통한 기존 DAC 대비 안전성 추가 제고

1. ADC의 payload인 화학약물(Cytotoxin)과 비교 시 독성을 띄지 않음; 2. 약물이 의도하지 않은 표적(단백질)과 결합하여 작용 시 발생하는 독성; Source: 회사 자료



향후 전망 | 현재 3개의 파이프라인 보유. 2028년 이후 L/O 목표

📁 사업 모델

파이프라인 L/O

DAC 후보물질

탐재약물 - linker - 항체

- 당사는 개발 물질을 전임상 ~ IND¹ 시점 L/O
- 1~3상 임상은 파트너사가 진행

기술 플랫폼 L/O

DAC 탐재약물 플랫폼

라이브러리 + 검증 프로세스

A B C D ...

- 당사는 플랫폼 제공
- 파트너사는 플랫폼 상 탐재약물 기반 DAC 연구개발 진행

- 전임상 ~ IND 승인 시점 조기 L/O 고려
- 파이프라인 & 기술 플랫폼 모두 L/O 고려

📊 보유 파이프라인

	적응증	Modality	현 개발 단계	라이선스 아웃 목표 시점	잠재 파트너사
DAC1	TNBC	DAC-TPD	DAC Optimization ²	2028년 이후	글로벌 바이오텍과 논의 중
DAC2	SCLC				
DAC3	Prostate Cancer/ HCC				
PKMYT	Ovarian Cancer, Pancreatic Cancer	Degrader	Degrader Optimization		글로벌 바이오텍 고려 중

: GENO-D 플랫폼을 통한 자체 R&D로 추가 파이프라인 지속 확보 계획

현 보유 파이프라인은 2028년 이후 L/O를 목표로 하며, 플랫폼 L/O 또한 고려 중
GENO-D 플랫폼을 활용, 우수 후보물질을 도출해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 계획

1. Investigational New Drug로 FDA에 제출하는 임상 1상 승인 신청서; 2. DAC의 탐재약물 후보물질이 최적화 완료된 상황에서 다른 DAC 구성 요소인 항체 (특정 암세포 타겟 가능)와 Linker (탐재약물과 항체를 연결)와 조합을 최적화 하는 단계
Source: 회사자료

Agenda

1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로드맵

3 2025년 실적

Appendix



자본 배분 정책 지향점 | 향후 지속적으로 자체 매출을 통해 R&D 비용을 충당하며, R&D 투자도

2배 이상으로 확대, 성장 사이클 가속화



1

재무적 Self-Sustainability 지속



Lazertinib, ADEL-Y01 위시한 수익실현 본격화 통해 재무적 자립 달성



과거 지속적 연구비 지출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유상증자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재무구조 달성



2

R&D 투자 2배 증가로 성장모멘텀 가속화



과거 3개년 대비 향후 3개년 R&D 투자는 보수적 수익 전망 기준으로도 2배 이상 증가, 성장성 및 수익실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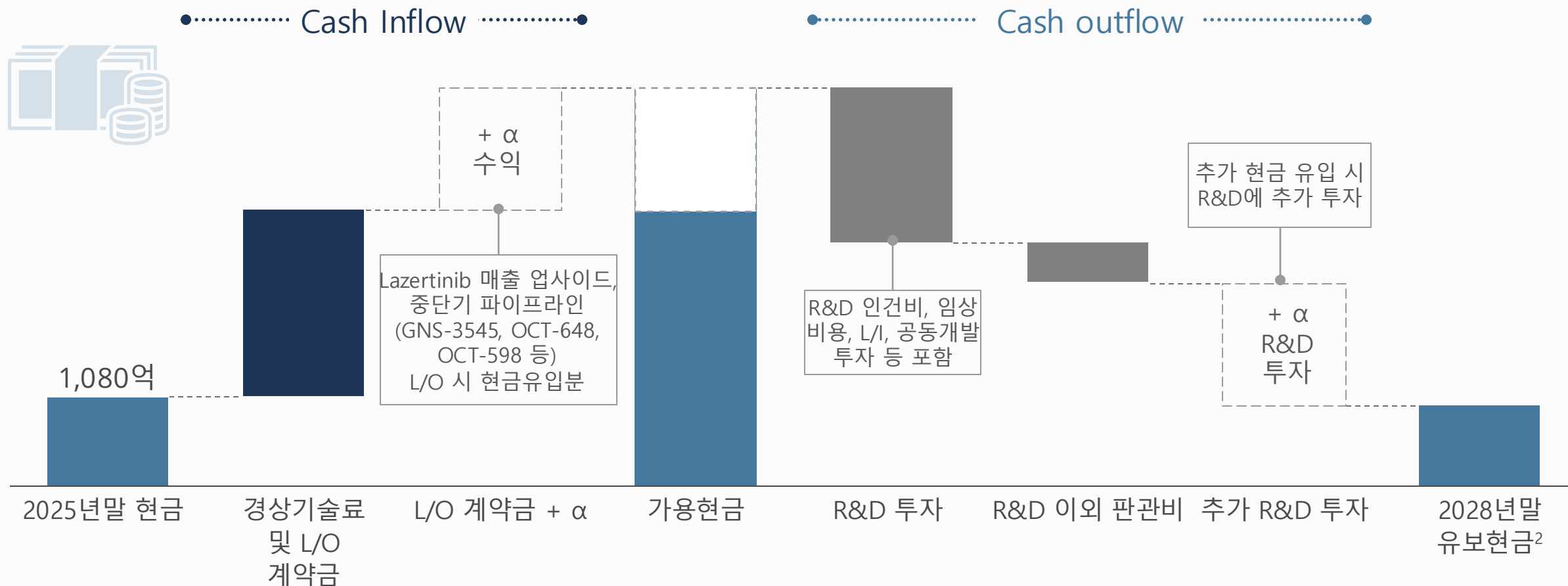


레이저티닙 로열티가 당사 보수적 추정치 대비 상회하거나, 타물질 L/O로 수익 발생시 R&D 투자가능 금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 가능



미래 자본 배분 계획

2026~2028 Cash flow 배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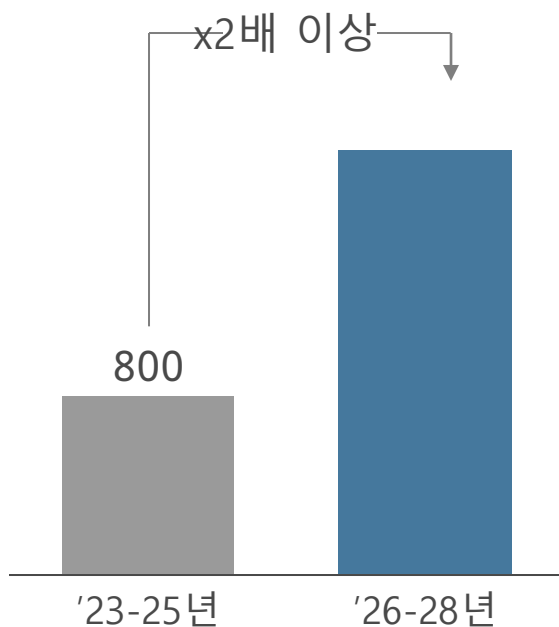




R&D 투자 로드맵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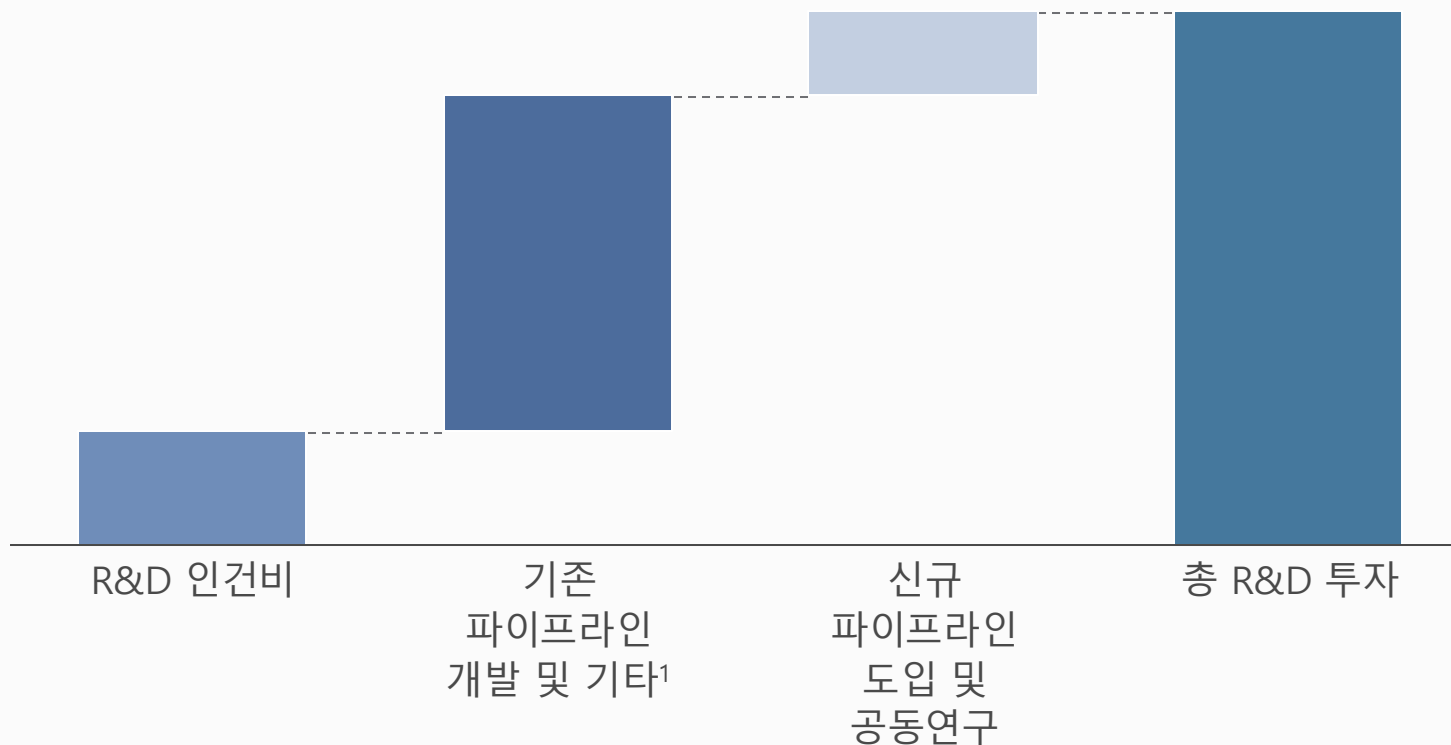
3개년 누적 R&D 투자

(단위: 억 원)



1. 파이프라인 자문비, 장비, Supplies, S/W 구독비 등 기타 비용

R&D 투자 세부 (2026E-2028E 누적)



Agenda

1 미래 비전 및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로드맵

3 2025년 실적

Appendix



2025년 실적 (감사전, 연결기준)

- 2025년 매출액 998.4억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기록 (ADEL Y01 기술이전 계약금 542억, 레이저티닙 마일스톤 349억)
- 2025년 영업이익 520.8억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기록하며 흑자 전환 성공
- 부채비율은 22.8%로 견조한 재무건전성 지속

(단위: 억 원)

	2025	2024	YoY
매출액	998.4	340.1	194%
매출총이익	978.9	317.8	208%
영업이익	520.8	(27.3)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559.5	(22.4)	흑자전환
현금성자산	1080.8	1,027.3	5%
차입금	154.9	136.2	14%
순차입금(순현금)	(925.9)	(891.1)	순현금
부채비율	22.8%	29.0%	-6.2%p

(단위: 억 원)

매출 상세내역	2025	2024	YoY	2025.4Q	2024.4Q	YoY
로열티 수익	75.3	26.4	186%	53.9	13.67	295%
기술이전 (마일스톤)	891.4	276.2	223%	131.4	275.12	-52%
기타 수익 ¹⁾	31.6	37.5	-16%	23.7	27.9	-15%
합계	998.4	340.1	194%	209	316.71	-34%

1) 기능성 소재, 치과용 이식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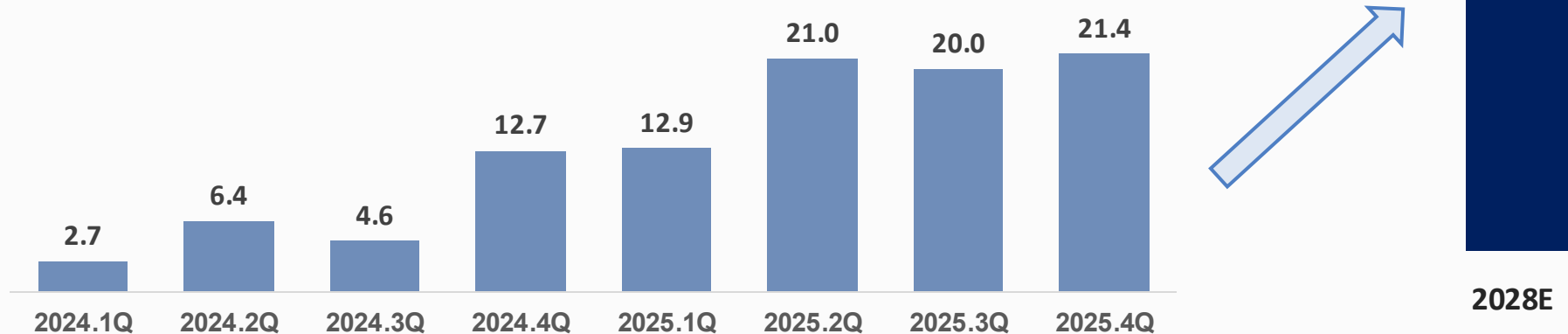
레이저티닙 경상기술료 실적 추이

Johnson & Johnson 2027~2028년 매출전망 이전 추정치의 두배 이상 상향

(2027년 18억 달러 → 36억 달러, 2028년 23억 달러 → 46억 달러)

- 전체 생존률 (OS) 표준치료제 (Tagrisso) 대비 1년 이상 연장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승인 완료 (미국, 일본, 중국 투약 완료)
-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 유럽, 미국 승인 완료 (SC) 승인
 - 유럽 (EU) : 2025년 4월 승인
 - 미국 (US) : 2025년 12월 승인

(단위 : 억원)



Agenda

1 미래 비전 및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로드맵

3 2025년 실적

Appendix



회사 현황 | 국내 최초 美FDA 승인 항암제 개발사로 韓·美 양국에서 후속 신약 개발 중

연혁

- 1998년 - 오스코텍 설립
- 2007년 - 오스코텍 코스닥 상장
- 2014년 - 원천기술 (GENO-K) 활용 Lazertinib 개발
- 2015년 - Lazertinib (GNS-1480) 유한양행에 라이선스 아웃
- 2020년 -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 (ADEL-Y01) 공동연구 계약
- 2024년 - Lazertinib 국내 항암제 최초 미국 FDA 승인
- 2025년 - ADEL-Y01 사노피에 라이선스 아웃

주요 사업

신약 연구개발 (항암제, 섬유화질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주요 성과

- Lazertinib (GNS-1480) 기술 수출 (유한양행, 유한양행 → 안센)
- Lazertinib 국내 항암제 최초 미국 FDA 승인 획득
- ADEL-Y01 기술 수출 (공동연구 계약, 아델 → 사노피)

주요 파이프라인

- 폐 섬유화 표적치료제 (GNS-3545)
- 신장 섬유화 표적치료제 (OCT-648)
- 항내성 항암제 (OCT-598, ONC1~3)
- DAC 항체-분해약물 접합체 (DAC1~3)

주요 리더십

윤태영 (오스코텍 R&D 대표이사), 이상현 (오스코텍 경영 대표이사), 곽영신 (오스코텍 CTO), 고종성 (제노스코 R&D 대표이사), 김세원 (제노스코 경영 대표이사)

임직원 수

- 오스코텍 - 57명 (R&D 인력 33명)
- 제노스코 - 34명 (R&D 인력 20명)

주요 사업장 소재지

한국 판교




미국 보스턴






성장 Story | 신약개발 역량 및 Lazertinib의 안정적 수익 기반, 다음 단계로 도약 준비



차세대 항암제인 항내성항암제 및 DAC 중심 파이프라인 개발

1-2년 마다 1개 이상의 L/O를 목표로 하여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1. Kinase는 단백질에 인산기를 전달하여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백질 효소이며, Kinase 저해제는 세포 신호 전달을 막아 염증,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 활용됨;
 2. Degradable-Antibody Conjugates



2024 & 2025 연결 재무제표 (감사 전 재무제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2025	2024
I. 매출액	99,838,669,222	34,007,602,680
II. 매출원가	1,945,760,670	2,226,905,237
III. 매출총이익	97,892,908,552	31,780,697,443
- 판매비와 관리비	18,172,580,964	13,085,469,272
- 연구개발비	27,637,029,375	21,429,086,056
IV. 영업이익(손실)	52,083,298,213	(2,733,857,885)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2,789,257,900	(1,117,998,956)
VI. 당기순이익(손실)	55,953,079,098	(2,242,520,842)

(단위 : 원)

재무상태표	2025.12	2024.12
I. 유동자산	198,959,659,900	141,218,953,845
1. 현금및현금성자산	15,192,017,092	13,106,075,270
2. 기타금융자산	92,895,195,996	89,621,747,671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7,640,705,644	35,326,045,575
4. 재고자산	1,815,145,309	1,769,343,290
5. 법인세자산	519,865,390	496,648,280
6. 기타유동자산	896,730,469	899,093,759
II. 비유동자산	30,895,399,171	29,559,256,015
1. 투자부동산	10,978,910,718	11,198,616,502
2. 유형자산	19,053,069,608	17,397,129,227
3. 무형자산	555,525,333	628,696,166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71,042,108	128,297,108
5. 사용권자산	136,851,404	206,517,012
자산 총계	229,855,059,071	170,778,209,860
I. 유동부채	38,620,240,580	34,779,293,08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946,177,909	4,748,063,130
2. 단기차입금	6,000,000,000	6,000,000,000
3. 기타금융부채	18,611,242,102	17,538,943,380
4. 기타유동부채	1,979,340,891	6,367,404,820
5. 유동리스부채	83,479,678	124,881,756
II. 비유동부채	4,029,651,925	3,543,550,355
1. 순환정급여부채	1,992,779,999	1,915,850,032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042,097,776	1,220,224,128
3. 이연법인세부채	945,546,136	429,776,387
4. 비유동리스부채	49,228,014	73,424,738
부채 총계	31,193,854,542	38,418,568,371
1. 자본금	19,129,088,000	19,123,838,000
2. 기타불입자본	244,863,485,234	245,043,255,716
3. 기타자본구성요소	8,101,640,517	6,451,774,008
4. 이익잉여금	(90,644,896,051)	(142,863,107,075)
5. 비지배지분	5,755,848,866	4,603,880,840
자본 총계	187,205,166,566	132,359,641,489
부채 및 자본 총계	229,855,059,071	170,778,209,860

